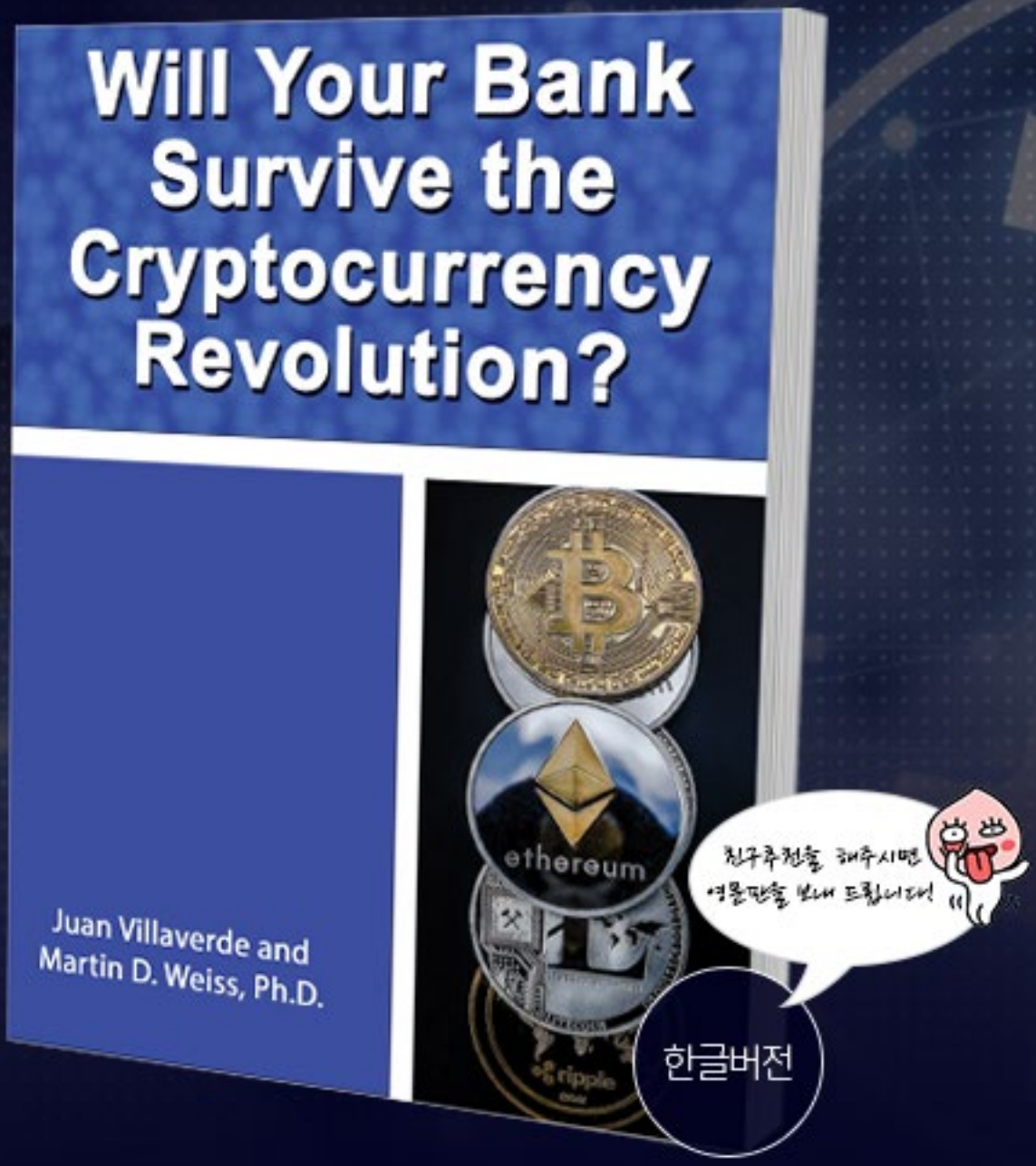
DIGITAL ASSET

S·P·E·C·I·A·L R·E·P·O·R·T

은행은 암호화폐 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BLOCK MEDIA x Weiss Ratings

www.blockmedia.co.kr

DIGITAL ASSET
S · P · E · C · I · A · L R · E · P · O · R · T
www.blockmedia.co.kr

은행은 암호화폐 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저자 Juan M. Villaverde / Martin D. Weiss, PhD

지난 4월 유럽중앙은행(ECB)은 이탈리아의 가장 큰 은행들이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5월에는 아르헨티나의 일반 시민들이 페소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뉴스도 전해졌죠. 그들조차도 이란 국민들에 비해서는 운이 좋은 듯 보였습니다. 리알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가 폭락하면서 1달러 당 4만2000리알까지 떨어졌죠.

심지어 암시장보다 더 낮은 가치로 리알화가 폭락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무장계획에 맞서 경제제재를 가한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제 3세계에서는 이렇듯 사람들의 저축마저 종종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신용 시장은 경색되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구제금융을 하거나 아니면 세계 금융이 붕괴되도록 두는 것, 이 둘 중 하나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결국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양적완화' 정책이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 양적완화 정책으로 간신히 버텨온 듯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약점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약점들로 드러나온 듯 보입니다.

약점 1 대형 은행 의존도

예전에도, 지금도 몇몇 대형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예금 은행과 중개인, 글로벌 자본 시장의 유동성 공급원의 역할을 몇몇 은행들이 담당하고 있죠. 이들은 거대한 유동성을 일반 대출 뿐 아니라 파생상품이라 불리는 위험성이 높은 투기적 도구를 활용해 일구어 냅니다. 이건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약점2 고객 예금을 활용한 투자

과도한 위험자산에 손을 대는 것에는 여전히 많은 보상이 따릅니다. 상업은행뿐 아니라 투자은행, 은행 외의 금융기관, 보험회사, 공공기관들도 종종 여기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 이런 금융기관들은 부동산과 모기지, 모기지 증권 분야에서 역사적인 투기 거품을 만들어내는 데 동조했습니다. 최근도 마찬가집니다. 그들은 여전히 투기적 투자로 인해 막대한 기업 부채와 국가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들의 자산을 가지고 이런 투기 등급의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예금을 통해 투기 등급의 자산에 투자합니다. 거품이 꺼지면 수 조 달러의 고객 예금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수천 개의 사업자들이 운영을 중단해야 할 위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약점 3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빚을 통해 이익을 꾀하는 것으로 주로 예금자들의 펀드로 투자자금이 마련됩니다. 극단적으로 위험한 자산이죠.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사실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최소 5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 금액이 너무 큽니다. 미국저축기관감독청(OCC)이 2017년 4분기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이 2017년 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기초가치는 **172조 달러**에 이릅니다. 외국은행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의 소유권이 중앙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OCC는 총 1,364개의 미국 보험회사가 파생상품 활동을 보고하긴 했지만, 이들이 보유한 파생상품의 89.4%가 대형 시중은행인 JP모건,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보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 거래소에 의한 투명한 청산이 힘듭니다. OCC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식 및 채권과 달리 62%의 파생상품은 중앙 거래소에 의해 청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사 은행이 옳은 방향으로 베팅을 했더라도 거래 상대가 돈을 갚지 못하면 여전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많은 금액이 거래 상대방의 건전성을 알아보는 실사에 쓰여집니다. 그러나 2008년 리먼 브라더스를 필두로 겪은 대형 은행들의 파산 경험은 한 곳의

파생상품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전체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도미노 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가 취약합니다. OCC는 파생상품계약의 75.8%가 이자율의 상승과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이자율의 변동으로 파생상품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대형 은행들이 2008년에 구제금융을 받아야만 했는지를 설명해줍니다. 우리는 구제금융 정책의 당위성이나 세부사항에 대해 화가 날 때까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엉터리 자본주의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실용적이고도 긴급한 대응이었습니다. 은행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돈, 즉 우리 돈으로 이 모든 투기적 자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융의 암흑 속에 있는 대중

저축자와 소상공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맡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은행들이 "상업 활동과 세계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신용 시장의 생명줄"이라고 말할 때 역시크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돈을 맡기기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들의 돈이 예치되고 나면, 그들의 돈이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누군가에게 대출되고, 더 이상 은행에 의해 보유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들이 모르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중이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사실 뿐 아니라 은행이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단순하고, 안전하고, 부채 없는 투명한 저축을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러한 실패가 문제가 되는 시기는 1980년대 수천 개 은행과 S&L의 파산 때나 2008년 대형 은행 파산 때와 같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제 3세계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금융 당국자들마저도 은행 계좌를 회피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들은 돈을 마구 찍어내고, 더 값싼 화폐로 바꾸고, 자산을 동결하고, 정부 구제금융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을

몰수하는 등 권력 남용의 사례들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입각한 시민들의 반응은 이성적입니다. 그들이 맡긴 돈이 은행에 없다는 사실은 법정 통화로 저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들에겐 차라리 매트리스 안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더 나을 지도 모릅니다.

암호화폐는 근본적으로 안전한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금융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술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비트코인은 전세계적인 대형 은행들의 파산과 일련의 구제금융에 대한 대응으로 2009년 탄생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첫번째 블록을 탄생시키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2009년 1월 3일. 2차 구제금융이 임박한 시점에."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단숨에 가로지르는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혁명적 기술의 숨은 의도를 마치 미래를 향해 보내는 타임캡슐 메시지처럼 담았는지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의 가장 근간에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돈을 직접 소유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원하는 사람과 직접 거래해야 합니다. 제3자도 없고, 중개인도 없고, 이를 통제하는 중앙의 권력도 없습니다.

파생상품과는 달리 모든 것은 코드와 커뮤니티에 의해 자동으로 보장됩니다. 거래 상대방의 건전성을 살펴보기 위해 실사에 자금을 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빠르게 수익을 내는 대신 막대한 위험을 감내해야만 하는 투기적인 글로벌 시장의 은행들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 기술 상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자산을 소유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금융 자산의 방향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은행들이 암호화폐 혁명의 물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현재의 형태로는 아닙니다.

금융기관들이 지금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갈아타지 않는 이유는 2가지 뿐입니다.

- 큰 변동성: 가격은 안정되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더 많이 쓰이고 유동성이 확보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입니다. 결국 시간문제죠.
- 정보 부족: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에서의 법정 통화보다 지갑 속의 암호화폐가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 통화와 암호화폐의 차이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종종 암호화폐에 대한 막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금융 불안의 역사가 있는 나라들을 위주로 말입니다. 그런 곳들에서는 암호화폐가 더 널리 쓰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세도 지속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란이나 짐바브웨를 보십시오. 평균 이하 금융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실생활 채택률이 아주 높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 막대합니다.

여전히 신뢰성 있는 정보의 부족은 가장 크고 중요한 진입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사용에는 일반 개인의 전문지식을 넘어서는 기술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생활에 사용되기 힘들다"고 말할 때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은행을 통해 송금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암호화폐로 송금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게다가 저렴합니다.

암호화폐가 더 빠르게 사용자 친화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증거들도 많습니다. 사용이 간편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전세계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코드를 스캔하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보안 또한 보장됩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더욱 간소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중들이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의 내재된 위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암호화폐에 더 많은 신뢰를 부여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대중들이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의 내재된 위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암호화폐에 더 많은 신뢰를 부여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은행들이 사람들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세상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공유 자동차 회사가 택시에 위협을 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은행을 붕괴시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금융에 분산원장기술이 적용된다면 은행이 무의미하고 쓸모 없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업 모델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행들은 암호화폐 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잘, 그리고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소유 자산을 투자할 것입니다. 여전히 신용의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와 과정은 바뀔 것입니다.

오늘날 은행들은 고객들의 돈을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저축자와 투자자들은 실질적인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 고객들은 사실상 은행 시스템에 강제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강제성이 금융기관이 가진 유동성의 주요 원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한 저축과 신용을 위한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금융 시스템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